



영화의 발전 과정에서 발현된 시청각 언어의 효용과 미학

The Utility and Aesthetics of the Auditory Language appear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ilms

저자 (Authors)	서정남 Seo Jeong-Nam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 (145) , 2007.5, 83-118 (36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45) , 2007.5, 83-118 (36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839789
APA Style	서정남 (2007). 영화의 발전 과정에서 발현된 시청각 언어의 효용과 미학. 국어국문학, (145), 83-118.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그 울림이 매우 큰 것이다.

“잠자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여! 민중들이여! 깨어나라! 떨쳐 일어나 비정한 전제 군주의 압제에 항거하라!” 민중의 봉기와 혁명을 선동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 장면들 안에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파업>(1926)에서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을 총검으로 학살하는 장면과 도살장에서 도축되는 가축들의 이미지를 이중노출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이야기의 내용적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감독이 필요하면 모으고 조립해서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이러한 사례는 기존의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상의 혁명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6. 사운드의 도입과 새로운 미학의 모색

1927년 10월 6일, 미국 뉴욕에서는 워너브라더스에서 제작한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 싱어 The Jazz Singer>의 시사회가 열렸다. 이로써 영화는 재탄생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혁명의 전기를 만들었다. 토키 talkie의 발명으로 촉발된 ‘동조화 된 대사의 도입’이 바로 이 혁명의 기술적 토대였다. 사운드의 도입은 영화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상영, 수용, 유통, 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많은 영향을 초래하며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비주얼 이미지라는 단일한 미디어를 사용하던 영화에 사운드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추가로 결합한다는 것은 미학적으로도 간단치 않은 문제들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성영화 시대에도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영화가 무성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무성영화는 내화면 음향(on screen sound)은 없었지만, 관객이 영화를 수용하는 공간인 극장 내

에는 언제나 다양한 소리들, 즉 해설자의 목소리나 피아노, 바이올린, 여타의 독주, 협주, 오케스트라의 연주(효과음)가 있었고 관객은 이러한 소리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성영화는 고의적으로 관객들을 청취자의 위치로 유도했다. 게다가 이 영화들은 피아니스트나 오케스트라가 현장에서 연주하는 극장 안에서 상영되었고, 연주자들이 스크린 위의 동작에 맞춰 음향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일본 영화에는 변사들의 목소리가 화면에 덧붙여졌다. 실제로 변사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영화 상영 분위기를 좌지우지했다.²³⁾

이처럼 무성영화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관객과 만났다. 같은 영화(필름)를 보더라도 최고급 극장에서 1급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조화로운 음향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느냐, 아니면 싸구려 극장에서 온갖 잡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란스런 관객들과 함께 보느냐는 전혀 다른 경험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영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음향의 도입은 통상 제작과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면서 그와 관련된 요소들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 받아 왔다. 그러한 만큼 영화 상영과 관객의 수용이라는 측면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그다지 밀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음향이 영화의 연출과 편집 등 제반 제작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상영 및 관객과의 관계, 영화 수용 문화의 근간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면에서 보면 이는 매우 의아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본 논고의 주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 것이다.

① 유성영화란 한마디로 비주얼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한 것이다. 이전의 시각 미디어에서 공감각적이고 복합적인 미디어로 바뀐 것이다.

23) 제프리 노웰-스미스 편, 위의 책, p. 263.

무성영화 시대에는 관람 환경의 현장 요소였던 음악과 음향이 미리 녹음되어 영화 텍스트 내부의 한 구성요소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이제 반가공품으로서가 아니라 어디서나 균일하고 표준화 된 완제품이 되었다. 이렇게 구성 요소 전반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인공물로서의 영화 텍스트가 존재하게 되었고, 영화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쇼이고, 이 쇼는 전 세계 어느 극장에서나 똑같은 내용이 되었으므로 극장 간의 등급이 없어졌다.²⁴⁾ 이제 극장은 생음악 연주가 곁들인 멀티미디어 쇼를 보러 가는 공간에서 단순한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역 오케스트라의 음악 반주는 이제 불필요한 군더더기였고, 극장 업주들은 생음악 쇼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극장 전속 오케스트라는 해체되었고, 연주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영화 관람의 규칙도 바뀌었다. 관객들은 이제 스크린 내외에서 벌어지는 영상과 공연을 동시에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그냥 듣고 보기만 하면 되었다. 생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혹은 내레이터(변사)의 중재가 없어짐으로서 영화는 이제 “상호 공동체적인 사건”에서 벗어나 “영화(텍스트, 제작자)와 개인적인 구경꾼 사이의 독점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영화를 사이에 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극장(업자)이나 관객들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폭은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다.

② 영화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진전시키며 완성하는 데 있어 대사의 중요성²⁵⁾이 강조되면서 시나리오 작가들(각본, 각색)의 중요성과 주가가

24) 무성영화 시대에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 극장들이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 속속 등장했다. 극장주들은 자신들의 자본력을 동원해 극장을 호사스럽게 치장을 하고 군소 극장들과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관람료를 비싸게 받았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극장들이 동일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평균화가 이룩되었고, 저마다 치열한 관객유치경쟁을 벌여야 하게 되었다. 영화 상영에 있어서의 지역적, 극장 환경적 영향이 원천봉쇄 됨에 따라 영화의 자율성은 그만큼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높아졌다. 대사를 쓰는 기술 역시 영화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소설과 연극에서 많은 것을 새로이 빌려와야 했고, 이는 재능 있는 극작가, 이야기꾼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영화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들의 연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발화에 의한 대사 기투는 단순히 의미 전달만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배우들 역시 본연으로서(자연인으로서)의 그 자신들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목소리를 돌려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얼굴(분장)뿐만 아니라 목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사운드를 통하여 배우는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
- 25) 극중인물의 대사 내용에는 대화와 독백, 방백이 있다. 다른 인물들과의 대화이건 혼자 말할(중얼거림), 또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외침(관객을 향해서)이건, 대사는 그 내용과 형식을 통하여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람들은 흔히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한다. 가령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상대방의 말씨의 특이성(말투), 즉 특정지역의 사투리나 토속어의 사용여부, 억양, 어조, 음색, 호흡의 장단, 통사론적 구조(간결한 말투, 접속어들을 사용한 긴 말투 등), 전문용어나 외래어의 사용유무 등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의 출신지역, 교육정도, 직업 사회적 지위, 가정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들(사회적 특성)과, 온유함, 겸손함, 거만함, 자신만만함, 소극적임, 천박함, 고상함 등등의 내면적(개인적) 특성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느 영화 작품에서 A와 B라는 두 명의 극중인물이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제 3의 인물(C)에 대해 칭찬이나 험담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상이 된 인물(C)의 성격을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A와 B)의 성격적 특성 역시 간파해낼 수 있다.

대사는 행동과 함께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해 드러내주는 강력한 특성소가 되는 것 외에, 보다 중요하게는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 된다. 어떤 서사 텍스트에 서이든지 우리는 인물 없는 사건을 상정할 수 없듯이 사건 없는 인물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영화의 관객은 인물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대사 하나 하나가 어떻게 작품 전체 맥락 안에서 인과관계를 맺으며 사건을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별적 요소들이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경남 :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pp. 201~252를 참조.

말을 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뉘앙스와 양면성, 심지어 모순된 성격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대화가 필연적으로 감정의 강도를 더하여 주지는 않지만(발성영화에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은 대개 대사가 없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지적 무게를 부여하였다.²⁶⁾

대사는 또한 영화의 문화적 특이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가령,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무성영화 시대에는 유럽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발성된 대사는 할리우드 영화로 하여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미국 사회만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할리우드 영화는 대사로 인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제시된 사건들, 극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국적인 성격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 영화의 연출과 촬영에 있어서 대화 장면들을 강조하게 되자, 이번에는 무성영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구축되었던 시각적 스타일과 스케일은 강력한 새로운 매체의 추가로 인해 도처에서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 제작자들은 대화 장면들로 인해 영상의 템포가 느슨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쇼트들을 보다 잘게 쪼개어 편집으로 재구성하거나, 패닝, 트래킹, 틸트업·다운 등을 통한 급격한 이동 촬영과 다양한 앵글의 구사 등을 대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영상뿐만 아니라 대사까지도 음악의 상위 개념으로 놓음으로 해서 음악은 순수한 배경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④ 당시에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던 할리우드는 사운드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일시적인 좌절에 직면했다. 세계 각국의 관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대사를 듣고 싶어 했으나, 더빙 기술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기득권을 장악한 나라들이 주도

26) Jack C. Ellis(변재란 역), 앞의 책, pp. 178~179.

27) 당시 모든 대사는 현장에서 녹음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배우들을 써서 그 나라 말로 된 영화들을 동시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잠시 뒤에서 다룰 것이다.

하는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자체 독립적이고 완결된 완제품 상태로 전 세계에 배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더 용이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운드의 도입으로 대사뿐만 아니라 음향효과와 음악도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영화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드라마에서도 대단히 복잡 미묘한 예술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그 수혜를 입어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제 주제 음악의 작곡, 연주 그리고 녹음은 모두 스튜디오가 직접 통제하게 되었고, 거대 자본을 구축한 영화 업계는 당시에 막 피어나던 음반업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다.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거대 스튜디오들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할리우드식 스튜디오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시각 이미지의 구현을 위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에 대한 관심은 사운드의 녹음 쪽에 맞춰졌고, 극장 부문에서는 재생장치 등의 설비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⑤ 영화예술(film d'art)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유성영화를 배척하면서, 영화가 예술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성영화 시기 뿐이라고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성영화의 종말은 제7의 예술의 죽음을 의미했다. 루돌프 아르하임²⁸⁾이나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같은 사람은 끝까지 유성영화를 거부했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찰리 채플린 역시 <모던 타임즈>(1935)에 와서야 비로소 사운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들이 보기에 사운드의 도입 초기 유성영화들은 배우들의 대사를 직접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영화적 무성영화 시대 초창기에 연극적 장면을 기록해서 재현했던 것과 비견될 정도뿐이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화로 하여금 단순한 사진 기록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풍부한 표현성을

28) 루돌프 아르하임(Rudolf Amheim)은 1932년 출간된 그의 저서, 『예술로서의 영화 Film as Art』에서 사운드의 도입은 영화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일 뿐이라고 강력 주장했으며, 이후 1957년 개정판을 내면서도 그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전의 생각을 바꿀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획득한 독특한 예술형태로 밀어 올린 자신들이 보기에 사운드의 도입은 유치한 장난에 불과하게 보였던 것이었다.

⑥ 자막과 더빙기술²⁹⁾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세계는 더빙을 선호하는

29)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에 의지할 경우, 우리는 배우들의 연기가 가진 사실성 부분은 웬만큼 잡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원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섬세한 뉘앙스를 받아들이기 방법이 없다. 번역 자막의 오역이나 의역 등도 우리의 관람행위를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영화든지 자국 관객들에게 어필하기가 가장 어려운지도 모른다.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에서보다도 관객은 대사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연기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빙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극장 상영시스템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영화를 우리말로 직접 더빙하여 상영한 사례는 전혀 없다.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까지 해 온 방식, 즉 주말 저녁 시간에 주로 방영해주는 외국 영화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이 영화들을 직접 만든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목격한다면 아마도 방송사를 폭파하려 하지 않을까 싶다.

영화 전문 케이블 방송들은 원작의 화면 비율과 사운드 등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식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지상파 방송(KBS, MBC, SBS 등) 권력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화면 비율(1:1.66, 1:1.85, 1:2.35까지 다양한 와이드 화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1:1.33의 표준 텔레비전 화면 비율에 맞추어 좌우를 몽텅 잘라내 버린다. 만약 원작이 1:2.35 와이드 화면을 채택한 영화라면, 이를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경우, 약 45% 정도의 화면은 없애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원전의 필름은 텔레비전 방영용 신호로 바꾸어 자기 태입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텔레시네 작업”이라고 한다. 영화 필름은 1초에 24프레임을 돌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NTSC 방식은 1초에 30프레임을 자기 태입에 기록한다. 물론 텔레시네 과정에서는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러닝 타임이 두 시간짜리인 원전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45분쯤으로 러닝 타임을 조절한 후, 그 시간에 광고를 넣는다. 이 정도는 애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서라도 결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더빙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할리우드 등 외국 영화를 자국(극장)에서 상영할 때, 아예 자막 버전과 더빙 버전을 같이 만든다. 그리고 일반 극장에서는 대부분 더빙 버전으로 상영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대사, 효과음, 주제음악 등으로 구성된 사운드 트랙 중에서 대사 부분만을 분리해서 다시 녹음 작업을 한다. 이때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거의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성우들이 녹음을 하고 이를 다시 조립해서 사운드 트랙을 완성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객은 정말 그 배우들이 자국어로 연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영화를 편안하게

나라와 자막을 더 좋아하는 나라들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문화적 자존심, 관극 습관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막은 관객들에게 그 영화를 만든 나라와 상영되고 있는 곳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준다. 더빙에는 이런 신호가 없다. 더빙은 영화들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데 발맞춰서 문화 변용 과정을 촉진시킨다.³⁰⁾

⑦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는 영화에서 사운드의 도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때문이다. 그만큼 상당 기간을 무성영화와 유성영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관람할 수 있다.

외국 영화들이 국내 극장 상영에서는 자막을 기본으로 한다고 앞서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으로 오면 100% 더빙으로 바뀐다. 성우 노동조합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원전의 사운드 트랙 중 대사 부분만 분리해서 녹음한 다음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기술을 이미 오래 전에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장 안일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사운드 트랙을 모두 깎아낸 다음 그 위에다 성우들의 목소리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는 간간이 주제 음악이나 효과음이 약간씩 흘러나오긴 하지만 원전이 담고 있는 사운드의 대부분은 이미 철저히 잘 아몽개진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항의와 일부 영화 마니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대안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음성다중 형태로 방영을 하고 있긴 하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번 주말, 영화 전문 케이블 방송 말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들이 내보내는 영화들을 보시기 바란다. 더빙 버전과 음성다중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가 나오는 버전을 교대로 오가면서 관람해 보시라. 과연 누가 무슨 권리로 원작을 그토록 망가뜨려도 되는지를 자문해 보시라. 영화에서 사운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소리를 아예 차단하고 잠시만 영화를 관람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30) 제프리 노웰-스미스 편, 위의 책. p. 272.

7. 나오는 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의 변모를 종합해 보도록 하자. 무성영화 시대의 비주얼 이미지라는 단일한 미디어는 만국공통의 언어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무성영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별 문제 없이 상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성영화는 만들어진 나라의 언어가 해외 상영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유성영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로 인해 할리우드는 일시적인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는 점을 앞서 간단히 언급했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들이 속속 드러난다.

번역(자막)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더빙 기술이 개발되어 통용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영화는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서 민족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는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영화들의 상영을 금지시켰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역시 비슷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10년 넘게 할리우드의 지배하에 있던 세계 영화 시장은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했다. 영화 시장은 언어의 숫자와 같은 숫자로 나누어졌다. 초기 단계에서는 노래가 이러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뮤지컬 영화는 대사에 의지하지 않았고, 번역 없이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웬만큼 즐길 수 있었다. 뮤지컬 영화는 새로운 장르이고 인기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할리우드는 전 세계 관객들을 겨냥하여 엄청난 양의 뮤지컬을 만들어 낼 수 있어 행복해했다. 하지만 대사가 많은 뮤지컬 영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스튜디오들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였다. 그 시기에 터진 대공황 타만은 아니었다.³¹⁾ 음향의 도입은 할리우드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력의 근간을 흔들었다. 영화 수출

31) 할리우드의 경우 대공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고,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했다. 대공황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고, 그들은 5센트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은 침체 일로를 걸었다.

대사는 할리우드가 전 세계 영화업계의 중심지라는 개념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한동안은 미국영화 제작의 분산화가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고, 1930년대에 몇몇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유럽 영화업계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다국적 언어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주앵빌에 거대한 스튜디오를 건설했다. 같은 세트와 의상을 써서 1편의 영화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동시에 제작하기 위해서였다.³²⁾

1932년에 가서야 언어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더빙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4년이 걸렸던 것이다.³³⁾ 그 이후 대체적으로 다수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위해서는 더빙이, 그리고 군소 언어들을 위해서는 번역 자막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이로 인해 1933년 이후 할리우드는 그동안의 일시적인 좌절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 각국의 수입 쿼터제도와 미국 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몇몇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막강 할리우드에 있어 그 영향은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순간부터 유럽의 영화 제작자들은 환상³⁴⁾을 버렸고, 꿈에서 깨어났다. 할리우드 영화

32) 제프리 노웰-스미스 편, 위의 책, p. 266.

33) 이에 따라 할리우드는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파라마운트가 프랑스의 주앵빌에 세운 스튜디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거대한 더빙 센터로 전환되었다.

34) 언어 장벽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유럽 각국은 자국 영화의 부활을 꿈꾸었고, 자신들의 입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었으며,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영화 제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1929년에 29편의 영화 제작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프랑스 영화 제작편수는 1932년의 경우 157편이 제작되면서 다시 얼마간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러나 더빙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작 편수는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환상이었음은 이렇게 잠깐 사이에 확인되었던 셈이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던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황금기가 오래 지속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 무렵부터 급격히 쇠퇴한 후, 전쟁의 발발로 기반을 거의 상실했다. 이후 누벨바그 시대에 가서야 얼마간의 회복

는 이제 별다른 경쟁자 없이 안정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되었다.³⁵⁾

논자의 무지의 소산일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영어가 만국 공용어가 된 것이 역사의 필연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가속화 하는 데 있어 가장 전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오직 영화를 통한 부(재화)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일념으로 세계 장악을 위해 달려오는 과정에서 할리우드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위업(?)을 조기 달성했던 셈이다. 영화를, 특히 할리우드 영화를 텍스트 그 자체로만 간단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화는 단일 미디어로 탄생하여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복합 미디어로 변모했다. 일련의 기술적 발명이 그 기본 토대를 이루어 주었고, 그로 인해 생성된 이 복합 매체 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잠재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사불란하게 오직 한 가지, “이야기하기” 방식에 집중하면서 오늘로 이어오고 있다. 그 내부에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거나 꿈꾸어 왔던 모든 것들과, 모든 인간이 공유할 원초적 욕망들이 들어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 욕망이 투사되어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한 결과를 들고 세상과 만난다. 세상은 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과 동일한 꿈과 욕망을 가진 인간형들을 만나고, 그것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소비한다.

핵심어 : 영화미학, 구문법, 영상, 음향, 내러티브

을 도모하게 된다.

- 35) 물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는 다시 텔레비전이라는 강력한 도전자와 만나 일전을 벌여야 했다. 그로 인해 영화는 생존을 위해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과 그로 인해 기술적 진보도 이룩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 논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도 않거니와, 본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보다 영양가는 별로 없는 부분이어서 논외로 한다.

참고문헌

- Barry Salt, "Film Style and Technology in the Thirties", *Film Quarterly*. 30(Fall 1976).
- David Bordwell, *Narration in the Fiction Film*, Univ. of Wisconsin Press, 1985.
- Edited by Elisabeth Weis and John Belton, *Film Sound - Theory and Practice*, Columbia Univ. Press, 1985.
- Edited by Geoffrey Nowell-Smith,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Univ. Press, 1996.
- 제프리 노웰-스미스 책임편집,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이순호 외 역, 열린책들, 2005.
- Jack C. Ellis, 『A History of Film 세계영화사』, 변재란 역, 이론과 실천, 1988.
- Pierre Billard, *L'Age Classique du Cinema Francais- Du cinema parlant a la Nouvelle Vague*, Paris. Flammarion, 1995.
- Rudolf Arnheim, *Film as Art*, Univ. California Press. 1957.
- 서정남,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 _____, 『영상예술의 이해』,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The Utility and Aesthetics of the Auditory Language appear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ilms

Seo, Jeong-Nam

This study discusses the utility and aesthetics of visual images and sound (scripts, sound effects, music, etc.), used in films. To understand those,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history of films. The beginning of the film and its evolution, as the story telling way, will be also dealt with. Moreover, this study will talk about the evolutionary steps until the type of films today appear by applying sound, which is the topic and core theme of this study as well.

The process and development from Auguste & Louis Lumiere to George Melies, Edwin S. poter, Davis W. Griffith, and experiments of Soviet montage style are reviewed in this study. The process has been not only to recognize films as 'a simple show thing' but also to deliver stories, which means 'the narrative integration style.' In addition, the process have allowed the acquirement of spectacles by only visual images, and fixed self-completed stories. Thus, the visual images in the silent film era could be lingua-franca. The silent films could be shown in any countries in the world without any problems. However, as a new medium sound has been added. It implies complicated aesthetical matters.

Until now, the adaption of sound has been considered mainly as a matter of making films, and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aspect of showing films and having audience have not been discussed very seriously. Sound has promoted not only directing and editing films, and changing film making styles in terms of the structure. Surprisingly, sound also has changed

the way of showing films and the relationship with audience, and the root of accepting the film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closely talks about the things that have been ignored.

A film was born as a single medium and has become a compound one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 series of technological inventions has provided the foundations to films, and although the potentiality of the compound medium 'the story telling way' has been the only main stream until today. The stories, with which people make money out of, contain everything experienced and dreamed through the human history and primal desires that every human will share. The stories also reflect the desire of wanting to speak something to the world, and meet the world with the results of their own actualized stories.

Keywords : Visual images, sound, spectacles, narrative, silent films, sound films

본 논문은 2007년 2월 28일 투고 완료되어 2007년 4월 24일
심사완료하고, 2007년 4월 26일 게재를 확정하였음.